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대량 해고 잇따른 매스 바이오 산업, 그래도 바이오 인력은 부족

3년간 MA바이오 인력 성장세 11.6% 미국 평균 6.3% 크게 웃돌아
향후 10년간 매년 5,700여명 필요인력에 단지 3,500정도만 충원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최근 잇따른 대량 해고로 뚜렷한 성장세 둔화를 보이고 있는 매사추세츠 바이오계이지만 여전히 인력이 모자라며 향후 10년간 많은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매스바이오 산하 매스바오테크교육재단(Massachusetts Biotechnology Education Foundation, MassBioEd)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바이오업계의 일자리 성장율은 2023년 2.5%에 그쳤다. 그 직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만 해도 매사추세츠 바이오계는 연직업성장율이 7.8%였다.

MassBioEd는 올해 매스 바이오업계의 성장 둔화는 팬데믹 직후 발생했던 바이오계의

붐이 점차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동안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풍족했던 매사추세츠 바이오계는 지난 2023년 각종 벤처캐피탈 펀딩 축소,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인원 감축 및 비용 절감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돌아섰다. 이 같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바이오계 해고 소식을 다룬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매사추세츠 바이오 업계는 67개 업체에서 총 3,800여 명을 해고했으며, 올해에도 지금까지 다케다가 600여 명을 축소하는 등 총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예고됐다. ▶▶10면으로 계속



매일 바이오계 해고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해도 매사추세츠 바이오계는 실제로 향후 10년간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바이오 랩어널리스트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설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예산, 전문적인 검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오직 매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수)가 6월 9일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개최한 2024 해외청소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에서 이재윤 학생 (오크힐 중학교 6학년)이 최우수상, 국대현 학생 (노스 애틀보로 중학교 7학년) 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에게는 각 상금 300불과 200불, 그리고 7월 16-18일 한국에서 열릴 한류체험 및 해외 전체 우승자 본선대회 참가자격을 주어졌다.

골든벨은 민주평통에서 청소년의 통일·역사관 함양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전세계 지역회의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시그니처 행사이다. 특히 이번 보스턴 협의회 골든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하여 약 20명의 학생, 학부모, 그 외 참관자들이 참여하였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골든벨의 목적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다함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인 만큼 참가자들에게 부담없이 모든 과정을 즐기라고 독려했다. 보스턴 협의회 교육분과 위원장인 정문철 박사와 준비위원들은 차질 지루하거나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온 퀴즈로 풀어나갈 수 있게 대회를 진행했다.

퀴즈 직전까지 시험문제를 복습하며 열정을 보인 참여학생들은 객관식, 주관식, O, X 형식 등 30개의 다양한 통일 및 한국역사 관련 문제를 풀었고 골든벨 사회자들은 휴식 시간 중 학부모들과 그 외 참관자들을 위한 미니퀴즈도 진행하여 세대 간 참여와 화기애한 행사 분위기를 이끌어내었다.

이재윤 학생은 수상 후 인터뷰에서 축구와 그림그리기가 취미이고 예상 문제집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설명하며 우승에 크게 기뻐하였다. 참여한 그 외 학생들에게는 장려상 상금 100불, 참가확인증 및 기프트카드가 수여되었다. 아이를

참석시킨 한 학부모는 “민주평통 골든벨 행사에 처음 참석 하였는데 놀랄 정도로 잘 준비된 행사였으며 재밌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석시키겠다” 며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올해 골든벨 준비 위원장 정문철 박사는 한인사회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가를 당부했다. 또한 공정하며 매끄러운 심사를 맡아준 김성혁 목사, 수석 부회장 박상원 하바드 의대 교수, 황규령 미주 교육분과 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스턴 협의회는 골든벨에 이어 6월 15일 미주 부의장배 골프대회(홍진섭 준비위원장), 그리고 22일 6.25 참전용사 묘비 국기달기(박찬모 준비위원장) 행사를 개최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보스톤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생명과학자 단체인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가 6월 27일 목요일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재외동포청과 Ligachem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의 김아람 박사와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털(Boston Children's Hospital)의 조명현 박사님이 세미나 연사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존의 월 미팅과 같은 양식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Harvard Medical School New Research Building 1031호이며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6시 20분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행사 등록은 다음 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저희 NEBS 메일을 구독하면 이후 NEBS의 다양한 행사와 채용/임용 관련 소식들에 관한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 행 사 등 록 : <https://forms.gle/1wbjNy5xz1mbNri78>

- NEBS 메 일 구 독 : <https://forms.gle/Leb-JeErkuSahfpRA9>

bostonkorea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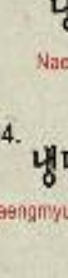
서울설렁탕
SEOUL SOLLET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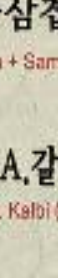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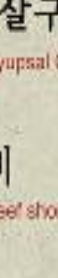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방법,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월별은 상담·예약·결산전담·의료진교육 보조지 및환호서 드려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5만원 ~**

- 내원예 - [내] 혈액검사(당혈, 신장기능검, 심폐기능검, 비뇨기과)
- 내원예 - [외] 상하신초음파, 유방초음파, 흉부촬영, 골밀도, 약제상담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원 **65만원 ~**

- 숙박 당일출발검진 + 수면 측정장치 + 숙취(1건)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원 **120만원 ~**

- 정밀 숙박종합검진 + MRI, EKG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원 **240만원 ~**

- 숙박 정밀숙박종합검진 + MRI, CT,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폐부(CT), 흉부(CT) 1건이상초음파, 정밀영상분석 + 개인맞춤식(이메일)의견 가능)

[유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7일간 진행가능한 검사 사항 **437만원 ~**

- 숙박 VVIP종합검진 + MRI(CT)정밀영상검진, 복부영역, 전신영상(CT, 상하신초음파검진 + 2주간 특등이력관리(특별약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성인용 환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울석역) 서울무민병관(가양역) 연산화도병관(삼봉역)	H+엘지병원(신림역) 세안병원(북촌문역)
--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재래증후 특별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자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들이 상이합니다.



허라메디칼 대표이사
김수남

617.949.1766

가짜주소 : 210-3499-4040(D: hysumilaw)
이메일 : hysum@hysumilaw.com
홈페이지 : www.hysumilaw.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 in total sales 2023



피아니스트 오민경씨와 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씨

장애인을 위한 미니 야외 음악회 웨스턴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미니 야외 음악회가 이번주 토요일인 6월 15일 오후 4시 웨스턴의 한 가정의 야외 뜰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리버스음악학교(The Rivers School Conservatory)의 교사인 피아니스트 오민경씨와 보스톤심포니(BSO)에서 49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한 베테랑 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씨가 미니 음악회를 열게 된다.

웨스턴의 한 연주자 집 뜰에서 개최되는 이번 야외 음악회에는 평소에 장애로 인하여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즐기기가 힘들었던 장애인 가족 모두가 편한 공간에서 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나이와 장애의 제한이 없으며 휠

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 잔디밭에는 30여개의 의자가 준비되지만 가족들이 직접 피크닉 의자나 돛자리를 갖고 와도 되고 간식거리와 음료를 준비해 즐기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작은 탱글우드 야외 음악회와 흡사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장애인 자원단체 FCSN(Feder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의 최 한세진씨는 “편한 공간에서 때론 움직이고, 때론 허밍으로 따라하며 즐기며, 다른 장애인 가정들도 만나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문이나 연주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최 한세진씨(schoi@fcsn.org)에게 이메일로 문의 또는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아 시민권 부여 법안 지지 서명운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입양되어 평생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어 투표권도, 정부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49,000명이다. 이들의 시민권 부여를 담고 있는 '2024년 입양인 시민권법'이 상정되어 이의 가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이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7명의 상원의원과 앤디 김, 영김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8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해있다.

법안의 골자는 입양인들에게 복지함 귀화절차 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한인 입양인이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목을 끌었던 바 있다.

비영리 유권자 단체인 한인폴뿌리컨퍼런스(KAGC)는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한인들의 서명운동과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명운동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하게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기입함으로써 거주 지역 대표 연방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부탁하는 편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신 청 링 크 :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about>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명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14th - JUNE 20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DAD'S NEW FAVORITE: KOREAN BEEF SUYUK

This Dad-approved recipe features boiled beef slices served with veggies, a hearty broth, and a tangy sauce!
아버지날, 사랑 가득한 부드러운 소고기 수육으로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하세요.

Happy Father's Day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Red Cherry 레드 체리 LB \$4.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EA \$5.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4.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3.9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4.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S/LB \$4.99	Frozen Loligo Squid 한치 20-25 CM/LB \$4.99
TONGTONGBAY Frozen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80-100'S 1 LB/PKG \$3.49	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볶음멸치 BOK KUM/5 OZ/PKG \$4.99
TONGTONGBAY Bok Kum Anchovy (Medium) 통통배 가축용 볶음멸치 5 OZ/PKG \$4.99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6.99 LIMIT 10

SMART CARD MEMBER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ORGANIC FARM Organic Sweet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찰쌀 15 LB \$34.99
HAIO Korean Beef Short Rib BBQ Sauce 해오름 소갈비 양념 1.85 LB \$4.99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3.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10.99	PULMUONE Jjajang Ramen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1.28 LB (5 EA/PKG) \$4.99	NONGSHIM Bowl Noodle Soup 농심 육개장/김치 사발면 HOT & SPICY/KIMCHI 3.03 OZ X 12 EA/BOX \$14.99	PULMUONE Soupy Topokki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14.9 OZ \$4.99	THE HOUSE MANDU Dumplings 그 집 만두 왕교자 PORK & SHRIMP=20 OZ/ BEEF/PORK & VEGETABLE=24 OZ \$7.99
DAERIMSEON Imitation Crab Meat Sticks 대림선 게맛살 큰잔치 1.1 LB \$2.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6.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SEMPIO Somen Rice Noodles 샘표 쌀 소면 1.76 LB \$5.99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37 OZ X 12 EA/PKG \$3.99
ORION Fresh Berry Cake 오리온 후레쉬 베리 STRAWBERRY/PEACH 11.85 OZ (12 EA/PKG) \$3.99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매동산 해태 맛동산 40주년 한정판 10.58 OZ \$3.99	KOTO Double Walled Galss Cup 코도 이중 유리 머그컵 TYPE A/TYPE B \$6.99 \$4.99	HELLO! Glass Water Bottle with Silicone Sleeve 헬로! 실리콘 커버 유리물병 PINK/ORANGE/BLUE 500 mL EA \$10.99 \$6.99	Bamboo Seating Cushion 고급 대나무 마작 방석 BROWN/BEIGE \$8.99 \$6.99

진 가 반 찬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출시 앞둔 한국의 AI 수학 학습프로그램, 한인학생 대상 베타 테스트

한국의 인공지능 학습프로그램 섬재, 약 20여명 대상으로 베타테스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공지능을 이용해 양방향 코칭학습을 실현시킨 수학 학습프로그램 회사 섬재 (<https://seomjae.co.kr>)가 보스톤의 한인 학생 4, 5학년(한국기준)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올해 여름 진행한다.

인공지능 학습프로그램 회사 섬재는 지난 3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를 앞두고 미국 학생들의 필요도를 파악하고 성취도와 학습 흥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섬재의 신희민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학습 전후의 성적 향상도가 측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앱의 얼마나 체류했는지, 얼마나 거기에 오랫동안 문제를 풀었는지 이런 것을 측정”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프로그램 앱을 써보면서 학생 그리고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 학부모님들로부터 어떤 피드

백이 오는지,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베타테스트 학생들은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에서 실시한 베타테스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므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방학에 중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한국 기준 중학교 1학년 수학과정을 배우고 문제풀이하는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학 학습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의 수업이 아니다. 개념설명과 문제풀이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어려워하면 난이도를 조절해주며 다시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학습이 도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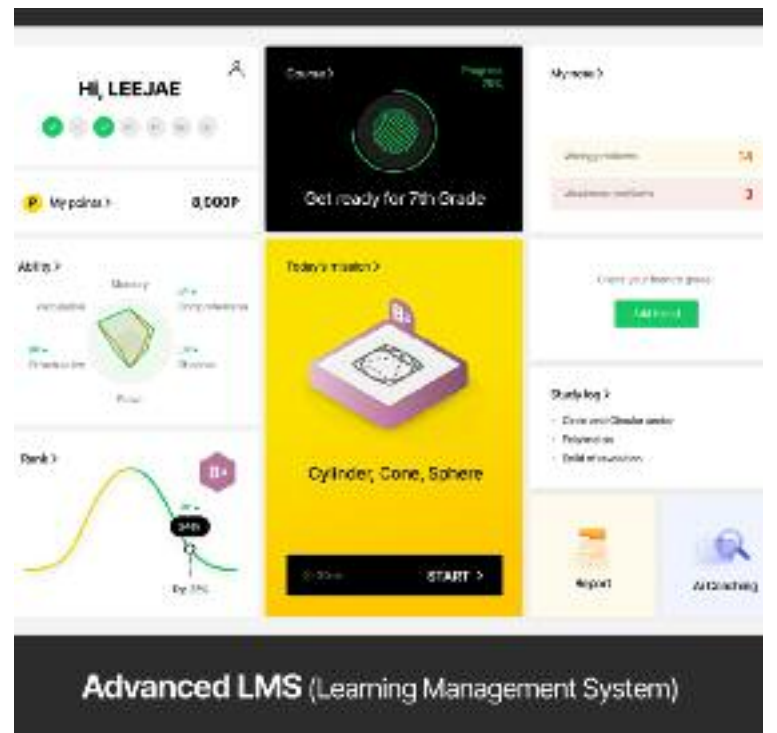
매주 학생들의 커리큘럼과 학습통계, 날짜별 학습진행 사항, 정답율, 약점 포인트 등을 담은 리포트가 메신저로 발송된다.

섬재는 한국에서는 대치동 학원에 서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추후 미국 수학 커리큘럼에 맞는 영어버전도 준비하고 있다. 섬재에 따르면 8월 이후에는 영어버전 베타테스트도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과거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문제는 행업체였던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섬재는 수학 과학 교사들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부터 약 10만건 이상의 수학문제와 해설, 3만건 이상의 수학강의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개념강의부터 반복문제풀이 학습, 커리큘럼 제공 및 학습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섬재의 신희민 대표는 아직 프로그램의 한달 이용 가격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원 지출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설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섬재는 20여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베타테스트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기간동안 프로그램이 담긴 아이패드를 제



공해 진행한다. 섬재에서는 7월 말 2명의 보스톤에 과전되어 각종 문제 및 오류 해결, 학부모와 학생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학생들은 아이패드 보증비용으로 한국학생들과 동일한 \$500를 선납하게 되며 추후 아이패드를 반납하고 충분한 학습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80%를 되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베타 테스트 프로그램이 동일한 아이패드에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바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 링크를 통해 7월 1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링크 : <http://coachon.me/>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ong@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thysu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줄리 김 978.454.2043 juliekim@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857.447.0591 nikipark1@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ch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허 978.666.3248 jinaheo@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ju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yo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02@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준 617.838.8973 hswang123@gmail.com	마리아 송 213.563.0997 maria022@bostonpremierrealty.com	딕키 허 413.507.1402 dickyheo@bostonpremierrealty.com	승배 김 617.913.3589 seungbaekim@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877.9387 heonjun01@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송 781.800.3412 i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곽복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지현김 617.510.1182 ji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곤근 617.843.8723 egonkim@bostonpremierrealty.com	태권 김 404.611.5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74.56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330.9952 nancywang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Gole 413.527.8979 xian0201@gmail.com	Li Jiang 248.418.0117 lijiang01@gmail.com
John Tran 617.63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02@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02@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벤트 박 291.448.8589 benpark@bostonpremierrealty.com					
재영 김 781.956.0409 jae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어상진 857.280.0434 eunsangkim@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0111@gmail.com					



49주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올해 13명 졸업생 배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24학년도 졸업식 & 종강식 개최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 개교 49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6일 졸업식을 갖고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매해 10여명 내외 졸업생 배출해 한국어를 배운 인재 약 500여명을 길러냈다.

6월 5일 토요일 오크힐 미들스쿨에 위치한 학교 강당에서 열린 2024년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권시아, 김유진, 김혜림, 루카스 아라미조, 백종우, 서정원, 송연, 이영걸, 이조우, 이준호, 이지훈, 최진욱, 한에린 13명이다.

졸업식을 비롯해 종강식, 학예발표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박현아 리더 교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급-1 급강반의 사물놀이팀이 개막연주를 통해 흥을 돋구고 졸업생들이 고급-2 한라반 기수단과 입장하며 시작됐다.

졸업식장에는 김재휘 주보스턴 총영사, 린다 챔피언(Linda Champion) NE시민협회 회장, 김영훈 NE과기협 회장, 양원미 학부모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졸업생 가족과 친지의 축하 동영상 메시지에 이어 단상에 오른 13명의 졸업생들은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지만 보람됐던 추억, 졸업까지 지원하고 격려했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보조교사로서 후배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다

짐 등을 전했다.

졸업생들 모두에게는 졸업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특히 권시아 졸업생은 학교장상, 이준호 졸업생이 보스턴총영사상, 송연 졸업생이 학부모 회장상을 받았다. 한편 학부모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점심 간식 판매로 모아진 재정으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13명 전원에게 전했고, 작년 졸업생 진승범 가정 등 두 가정에서는 졸업생들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냈다. 재미 제주 43기념사업회·유족회(회장 양수연), NE과기협회(회장 김영훈)에서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남일 교장과 양원미 학부모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졸업장을 받는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한인 2세로서의 올곧은 정체성을 견지한 자세대 리더들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며 격려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매년 미주 내 10개 총영사회의에서 한글학교와 2세 교육이 주로 거론되는데 미주 최고 수준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자랑하곤 한다. 보스턴 총영사관에서도 지역의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자재 및 각종 연수 지원은 물론 2세 교육전문가와와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시민협회 신임 회장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

귀여운 사진과 가족 여러분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교한 1975년에는 한인 이민 인구가 많지 않았고 당시엔 영어가 아닌 한글교육은 엄두가 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 학교가 이제는 미주 최고 수준의 한국학교로 자리한 것은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땀과 수고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졸업생들의 특별공연이었다. 김혜림·이영걸·한예린 졸업생의 ‘영화 UP’ 주제곡 연주에 이어 송연·권시아·김유진 졸업생의 멋진 워너비 댄스와 졸업생 전체가 참여한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슈퍼사이클’ 김종민 선배의 지도 하에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해님반-조선반 후배들은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머님의 은혜’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합창단은 ‘졸업가’를 답가로 불러 선배님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어진 2부 종강식에서는 기초부터 고급과정과 세종과정까지 각 학급의 성적상 및 출석상 대표 수상에 이어 각 과정수료 대표 시상 순서 및 보조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진행됐다.

‘종강식의 꽃’인 학예발표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오후반 발레반(지도 이영미 교사)의 귀여운 발표에 이어 세종-6과정 자두반의 ‘시낭송’ 발표가 이어졌다. 세종2&



3과정 사과반과 포도반은 ‘앞으로’를, 기초-2과정 토끼반 & 거북이반은 ‘초록빛 바다’를 불렀다. 기초1과정 해님반 달님반과 세종1과정 딸기반은 이현정, 이해정 지도교사가 만든 멋진 대문 소품으로 장식하여 ‘대문놀이’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 기초-3과정 금도끼반과 은도끼반은 ‘연날리기’를, 기초-4과정 흥반과 놀부반은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아름답게 열창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교육부의 전시회도 열렸는데 중급2과정 학생들이 미술교육(지도 김민희 교사)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했고 고급-2&3과정도 서예반(지도 정성렬 교사)에서는 열심히 배운 실력으로 멋진 서예작품을 전시하여 관람한 학부

모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에서는 행사 후 교사회 종무식을 갖고 학년을 마무리했다.

여름방학에 들어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9월 7일에 신입생 개학식을, 9월 21일에는 전교생의 개학식을 갖고 2024~25학년도를 시작한다. 가을학기 등록신청과 한국학교 교사로서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등 2세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www.ksneusa.org) 또는 학교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전화 (508) 523-5389로 연락하면 된다.

졸업식 및 수상자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및 유튜브로 공유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13th - JUNE 20th, 2024



**KOTO MINI BBQ
CHARCOAL GRILL**

고토 미니 차콜 바베큐 화로구이
 14 X 10.5 X 9.5 INCH/EA

\$8.99 ← ~~Reg. \$14.99~~



**KWANG CHEON KIM
SEASONED SEAWEED**

광천김 곱창 도시락김

\$9.99 ← ~~Reg. \$16.99~~
 0.17 OZ X 27 EA/PKG
 LIMIT 2



Dr.Chung's Food



**DR. CHUNG'S FOOD RICH
SOYBEAN SOUP GIFT SET**
 정식품 진한 콩국물

\$8.99 ← ~~Reg. \$1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대량 해고 잇따른 매스 바이오 산업, 그래도 바이오 인력은 부족

▶▶1면에 이어서

이 같은 해고 추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계는 여전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비록 증가세가 감소하긴 했지만 2002년의 직원모집공고 증가세가 46%였던 것보다 약간 주춤한 2023년에도 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고된 직원들은 여전히 모자란 인력에 따라 바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매스바이오계는 다른 주의 바이오 산업에 비하면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있다. 주 바이오 인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6%가 성장했으며 이는 미 전국 평균 6.3%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3년 바이오계에 종사자는 14만 명 이상이며, 전해인 2022년 13만2천 명보다 8천여명의 성장세를 보여 미국 및 세계 바이오 허브의 면모를

이고 있다.

MassBioEd는 10년 후인 2023까지 총 3만8천여명의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년간 4만 2천 명의 인원증가 예측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관은 매사추세츠 대학들이 충분한 근로인력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바이오테크와 의학실험실 테크니션 등은 약 5,700여명씩 더 필요할 예정이지만 매사추세츠 교육기관은 필요인원의 61%인 3,600여명만 충당해내고 있다.

매스바이오에드는 이 같은 인력부족이 대학에서 배출한 인원이 부족하기 보다는 생물학과 화학공학 관련 학과 졸업생 중 5명 중 1명에 해당하

는 단 19%만 바이오계에 일자리를 잡으며, 80%가 다른 산업계 직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매스바이오에드는 대학 취업설명회와 인턴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이오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스바이오의 서니 스와츠 대표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바이오 전공학생) 일부는 의대만 지원이 유일한 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스바이오에드는 인력의 다양화를 위해 공립대학들과 협력해 도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량 해고소식에 흑 바이오계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면 매사추세츠 바이오계는 여전히 기회가 풍부하다는 것을 매스바이오에드는 충분히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원 보스턴 205개 리커 라이선스 허용안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스 주 하원은 보스턴 전역, 특히 비교적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5개의 신규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스톤시의 리커 라이선스를 증가시키는 이 법안은 보스톤시가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축소된 규모로 수정되어 상정된 지 1년 만에 5월 2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며 상원의 표결에 따라 주지사에게 보내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총 198개의 라이선스가 향후 3년에 걸쳐 허용되며, 이 중 180개는 보스톤 내 저소득 지역인 12개 우편번호 지역에 배정된다. 15개는 비영리단체에, 3개는 브라이언트 오크스퀘어에 배정된다.

리커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락스베리, 로슬린데일, 매타웁, 하이드파크, 웨스트락스베리, 이스트보스턴, 도체스터, 찰스타운, 그리고 자메이카플레인 등으로, 이 지역들은 매년 5개의 리커 라이선스를 할당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가진 업주들은 매년 특정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 후 시에 반납하게 된다.

나머지 7개의 라이선스는 보스톤시 내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으며,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최초 상정된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보스톤 시내 무제한 리커 라이선스는 1,200개로, 20년 전 모든 한도 허용 수를 넘어 계속 가격이 뛰었으며 현재는 약 5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무제한 리커 라이선스는 그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레스토랑 업자들에게 큰 부담의 원인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라이선스가 불평등을 조장하며 저소득 거주 지역에는 라이선스가 분배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보스톤시가 당초 제안했던 법안은 향후 5년 동안 저소득층 지역에 250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이는 10개의 지역구에 매년 25개씩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계획이었다. 이 안에는 찰스타운, 자메이카플레인, 브라이언트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시 전역의 공실로 남아있는 곳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보스톤시 주민 재산세 폭등 차단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세금 전가

미셸 우 시장의 법안 신청에 보스톤 시의회 8대 4로 통과시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재산세 폭등 부담을 줄이고 이를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에게 부담케 하는 미셸 우 시장의 제안 법안을 5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8대 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통과된 법안은 주 의회로 송부되어 회기 마감인 7월 31일까지 주의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 보스톤시는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우 시장은 재택근무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대폭 낮아져 이 부족한 분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상업

용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내 모든 시와 타운은 매년 재산세를 증가할 때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우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주법 하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시는 언제든지 몇 년 후 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만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시장의 제안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빌딩 소유주들은 이미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많은 공실률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담하다고 반대했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들은

에드 플린, 에린 머피, 피츠제럴드, 그리고 브라이언 워렐 4명이었다. 벅 베이와 기타 지역구를 대표한 사론 두칸 시의원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세금 인상을 논할 때 목소리에 분노가 담긴다고 말하며, 만약 상업용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보스톤 시내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우 시장의 정책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견지해온 에린 머피 광역구 시의원은 시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사업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주들에게 세금을 높이지 말고 다른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정부에게 세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주민들의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시 상업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소폭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라 자파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주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는 상업용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 예산을 줄이자는 말하며, 대신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비상 저축금을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납세자들을 형제에 비유하며, “나는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때로는 좀더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를 이해해야 하며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촌 베드포드 뒤흔든 살인사건, 딸이 부모 사살

정신병 앓는 딸, 아침 같이하러 온 부모를 뒷좌석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교외 부유하고 조용한 타운인 베드포드를 뒤흔든 총격 살인사건의 주인공은 올해 24세의 여성 제시가 린 카발라로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병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그의 부모였다.

카발라로는 자신의 부모 텔마, 마크 카발라로(56세 동갑)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보석없이 수감을 명령했다. 카발라로의 변호사는 “포괄적인 정신 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옥에서도 정신과 전문 스태프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카는 사건 당일 6일 아침 직장 출근했지만 갑자기 공황 장애를 일으켰다며 귀가해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와 아침을 함께할 것이라고 남자친구의 아빠에게 말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마케시니는 부모와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며 부모들이 그녀를 안정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의 SUV 뒷좌석에 올라탄 그녀는 부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이후 그녀는 거주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와서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방금 부모를 쏘았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칼바로그가 남자친구의 금고 안에 있는 총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아들도 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에는 약 4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칼바로는 비교적 침착했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체포당했을 때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두차례 울음을 터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보스턴, NBA 정상에 1승 남았다...댈러스 꺾고 챔피언 3연승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보스턴 셀틱스가 미국프로농구(NBA) 18번째 정상 등극에 한걸음만을 남겨 놓았다.

보스턴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원정 경기로 열린 2023-2024 NBA 챔피언 결정(7전 4승제) 3차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106-99로 제압했다.

1,2차전을 모두 승리한 보스턴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보스턴이 4차전까지 승리하면 2008년 우승 이후 1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고, NBA 역대 최다인 18회 우승팀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센터 크리스토퍼 포르진기스가 왼쪽 다리 힘줄을 다쳐 결장했지만, 제이슨 테이텀(31점), 제일런 브라운(30점) 등 선수 전원이 고른 활약을 펼쳐 승리를 만들었다.

댈러스는 팀의 주축 루카 돈치치(27점)가 4쿼터 승부처에서 6반칙 퇴장을 당해 보스턴을 추격할 힘을 잃었다.

보스턴은 전반에 테이텀, 댈러스는 돈치치를 앞세워 접전을 펼쳤다.

보스턴은 전반을 50-51로 뒤졌지만, 3쿼터에 3점슛을 폭발시키며 전세를 뒤집었다. 즈루 홀리데이와 브라운이 번갈아 3점슛 터뜨렸고, 벤치 멤버 제이비어 티먼까지 3점슛에 가세해 3쿼터를 85-70으

로 마쳤다.

4쿼터 들어서도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의 3점슛이 터지자 댈러스의 제이슨 키드 감독은 쿼터 시작 2분도 되지 않아 작전 타임을 불렀다.

작전 타임 뒤 댈러스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됐다.

데릭 라이블리의 레이업, 조지 그린의 3점슛으로 추격을 시작한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의 득점까지 보태 6분 11초를 남기고 90-93까지 따라 붙었다.

기세가 올랐던 댈러스는 종료 4분 13초를 남기고 돈치치가 여섯번째 파울을 저질러 퇴장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보스턴 브라운의 돌파를 막으려 했던 돈치치는 비디오 관독까지 요청했지만, 판정은 뒤집히지 않았다. 돈치치는 자신의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6반칙 퇴장을 기록했다.

댈러스는 돈치치의 퇴장 뒤 어빙의 2점슛으로 92-93까지 점수를 좁혔지만 거기까지였다.

보스턴은 브라운의 레이업으로 다시 달아났고, 종료 2분 48초 전에는 화이트의 3점 슛으로 98-92로 다시 점수를 벌렸다.

테이텀은 덩크로 댈러스의 림을 흔들었고, 22초를 남기고 화이트가 자유투 2개로 104-98을 만들며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cty@yna.co.kr



보스턴 승리의 주역 제이슨 테이텀



보스턴의 제일런 브라운의 슛



6반칙 퇴장당한 루카 돈치치

성 안토인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 물가지표가 올해 초보다 긍정적이었고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라고 평가한 뒤 이처럼 말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물가지표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은 금리인하에 나서도 될 만큼 확신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에선 같은 날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공개된 5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미 노동부는 이날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한 수치다.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5월 CPI 지표가 이날 공개된 연준의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EP)에서 올해 연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3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8%로 제시했다.

이는 4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2.8%)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날 회견에서 일부 기사는 연준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작년 하반기 물가지표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언급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 산정 시 이 같은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지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지표가 추가로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또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악화하거나 인플레이션



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배경이 됐던 노동시장 과열에 대해선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파월 의장은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은 현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단단(tight)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한 위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고려한 위원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 후 기준금리 현행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위원들은 내다봤다.

pan@yna.co.kr

美 5월 도매물가 '깜짝 하락'... 전월대비 0.2%↓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5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물가가 한 달 전과 비교해 예상치 않게 하락했다.

도매물가라고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4월 들어 전월 대비 0.5% 상승한 생산자물가는 5월 들어 하락 반전한 데 이어 등락률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1% 상승)도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했다.

미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1%) 이후 2개월 만이다. 낙폭은 지난해 10월(-0.3%) 이후 가장 컸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해 0.2%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역시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했다.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8% 내린 게 5월 생산자물가 하락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최종수요 재화 가격 하락 폭은 작년 10월(-1.2%) 이후 가장 컸다.

올해 들어 생산자물가 반등을 견인했던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도매물가라고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생산자물가는 올해 1~2월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른 데다 4월 들어서도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의 물가 반등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전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며 시장이 한숨 돌린 데 이어 5월 생산자물가마저 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잠잠해질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 왔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전날 회견에서 "가장 최근 물가지표가 올해 초보다 긍정적이었고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3)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을 생각하며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땅으로 왔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안 중에서 한국인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좋은 종목과 투자하는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본인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도박의 결과는 시간문 제일 뿐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진다. 금전적 인 손실보다 더욱 큰 손실은 주식시장과 결별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재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이 워런 버핏

(Warren Buffett)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부유해지기는 매우 쉽다’ 고 언급한 것이다. 일반인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 아무리 적은 금액 일지라도 가능한 한 일찍 지속해서 투자하면 투자 수익이 발생하여 재투자되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돈이 계속 증가한다. 예를 들어, 매월 투자되는 100달러는 연 7%의 수익률로 30년 후에는 100,000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투자 자동화: 일반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으로 매달 얼마씩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의 사 결정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직장인은 401k에 자동 투자하는 것은 개인 은퇴 계좌(IRA)에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자산

형성 전략에 효율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 투자: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지수(S&P 500)를 추적하고 다양화를 제공하여 투자 위험을 줄인다. 또한,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에 비해서 인덱스 펀드는 낮은 수수료로 유명하다.

인덱스 펀드 500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스라, 메타, 등으로 이어진다. 나의 투자 돈이 매우 적은 액수일지라도 이런 500대 기업에 투자되는 것이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500대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한다’ 고 언급한 것이다.

장기적인 사고: 인기도서 작가 모건 하우스(The Psychology of Money)에 따르면,

93세인 워런 버핏은 재산의 99%를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언급하며 ‘만일 버핏이 65세에 은퇴했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2022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며 주식시장이 금융경제의 중심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재정을 튼튼히 하며 부를 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식시장의 수익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나의 자그마한 투자한 돈으로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파는 것이다.

지난 5년 주식시장 연평균 무려 14% 이상이다. 지난 10년도 연평균 수익률은 12%이다. 나의 투자 돈이 3배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에 나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 모두 제대로 하는 투자로 아메리칸드림을 만끽해 보시길 희망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폐위된 제25대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이 56년에 13세 풍월주로 취임하였다. 용춘의 어머니는 지도인데 곧 미실과는 이종사촌간이다. 50세 가량이 된 미실은 많이 늙어가고 있었지만 장남 하종의 딸, 유모柔毛와 영모永毛의 재물을 보며 마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후일 유모는 14세 풍월주 김호림과 혼인하였고, 영모는 612년 김유신과 결혼하였다.

당시 월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다.

〈처를 바쳐 부자가 되고 일곱 아들 모두 딸을 탄다네

딸을 마쳐 가난해지고 세 아들 모두 배움을 입었네〉

어느날 김용춘이 종자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 이 노래를 듣고 그 의미를 몰었지만 그들은 선듯 대답하지 않았다.

572년 동륜태자가 죽기 전에, 미실의 동생 미생은 동륜태자와 금륜(576년에 진지왕으로 즉위)과 많은 여색漁色을 하였다. 그들의 귀에는 당두唐斗(나마, 11등급)의 처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들어왔다. 호색한 미생은 당장 태자를 데리고 당두의 집으로 가서 관계幸를 주선했다. 곧이어 태자가 죽고 나서, 미생은 당두의 처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당두가 아침저녁으로 찾아와서 아직 아이가 어려서 모유를 필요로 하니 다만 색공만 하는 첩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미실은 미생에게 “어디 계집이 없어서 남의 처를 뺏느냐!” 고 질책하였다. 이에 미생은 당두의 처를 본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당두의 처는 스스로 가출하여 다시 미생에게로 왔다. 결국 미생은 그녀를 첩으로 삼았고, 그 ‘대가’ 로 당두를 조주祖主에 천거하였다. 이어서 588년 미생이 풍월주를 미실의 장남 하종에게 위임하고 나서 조부調府의 수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두를 사부司簿로 채용하여 정무를 크게 개혁하였다. 당두의 임무 수행에 흡족한 진평왕은 그를 대나마(10등급)로 승진시켜 조부의 우경으로 삼았다. 미생과 당두는 자신들을 위한 재물도 많이 모았다. 그리고 미생이 당두에게 “내가 너의 처와 더불어 천하와 국가를 위하여 인물을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당두의 아들들 모두에게 합당한 벼슬을 주어 출사出仕를 시켰다.

〈처를 바쳐 부자가 되고 일곱 아들 모두 딸을 탄다네〉라는 구절은 당두를 빗대어 부른 노래 구절이었다.

당두뿐만 아니라 여색을 밝혔던 미생에게 수 많은 낭도들이 딸과 누이들을 연결고리로 하여 낭두로 승진한 특권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을 새로운 골의 무리인 신선골新善骨이라 불렀다. 결국 그 폐단은 전체 낭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12세 풍월주 김보리는 그 폐단을 없애고자 각 파(진골정통파, 대원신통파, 가야파)에서 고르게 등용하는 ‘균등’ 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제도 역시 해결

책이 될 수는 없었다. 재능이 출중하여도 ‘선골’의 품이 없거나, ‘균등’에 걸리면 승진을 할 수가 없었다.

대남보와 타파他派의 동급인 조심보曹心甫를 통하여 그 폐단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풍월주 김용춘의 인재 등용관과 상선들의 지지를 받으며 확고한 지휘체계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3세 풍월주 용춘공조에 실린 내용을 인용한다

〔그때 대남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감하고 일을 잘 처리했으며 급인지풍急人之風이 있어 우리들이 모두 우러러보았다. 그런데 선골善骨의 품이 없고 또한 균등의 힘이 없었다. 어떤이가 대남보에게 권하여 “그대의 딸이 아름다운데 어찌 신주新主에게 바치고 골품을 얻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대남보는 “우리 무리는 천인賤人인데 어찌 감히 여색으로 풍월주를 미혹할 수 있는가?” 했다. 용춘공이 듣고 그 말을 기특하게 여겨 낭두별장을 불러 묻기를 “대남보의 재능이 낭두가 될 만한가?” 했다. 답하기를 “될 만합니다. 그러나 골품이 없습니다” 했다. “...공功은 어떠한가?” 답하기를 “윗사람(풍월주)을 모신 것은 낭도로서 출정한 바 있는데... 대상對上이 아직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했다.

용춘공이 “대상이 누구인가?” 묻자, “조심보曹心甫입니다” 라고 답했다. 용춘공이 “조심보가 대남보보다 공이 큰가?” 물었다

. 별장이 말하기를 “조심보는 비록 공이 없으나, 대남보의 대상입니다. 만약 대남보를 승진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조심보를 승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3차 균등의 법입니다” 했다. 공이 웃으며 “재능이 없는 자를 재능이 있는 자의 대상으로 삼아 재능이 있는 자를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재능을 장차 썩히는 것이다. 골骨과 파派가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다. 이에 대남보를 세 번 승진시켜 낭두郎頭로 임명했다. 불평하는 자들이 상선을 찾아가서 바로잡으려 했다. 문노공은 말하기를 “법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은 모두 늙었는데 어찌 신주新主를 괴롭히겠는가?” 했다. 이로 인하여 미생공 또한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습이 고쳐졌다.]

한편 대남보의 딸은 유희遊花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풍월주 김용춘을 사모하며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용춘은 ‘신선골’의 폐단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남보의 딸을 거두지 않다가 결국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대남보는 그간 가산을 모두 풀어 용춘에게 충성하고 딸도 바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딸을 바쳐 가난해지고 세 아들 모두 배움을 입었네〉라고 노래하고 다녔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부드러운 강함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 서로에게 건네고 받고 오고 가며 살아간다. 서로에게 마음, 몸을, 사랑을, 기쁨을, 행복을, 정을, 우정을 때로는 미움과 질투를 그리고 물질 일 때도 있다. 여하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 것일까. 이왕이면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다. 서로에게 보채지 않는 기다림의 마음으로 바라다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내 곁에는 그래도 서너명쯤 편안한 이들이 있어 행복이 몰려온다.

세상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면 언니든, 동생이든 정말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순간에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참나이다. 어찌 저리도 알뜰하고 뽄뽄하고 살림꾼인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무얼 했던가 싶을 때가 참 많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느끼는 부러움이 또 있다니 펍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위로해준다. 그래, 모두가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일까

말이다. 서로가 다르기에 더욱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까닭인 게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러움과 칭찬을 해주는 일 말이다.

나무숲에 들어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때로는 큰 나무들이 바람을 타며 일으키는 소리는 금방이라도 나무가 쓰러질 듯 무서운 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나 나중에 소리가 가라앉은 후 생각해 보면 나무가 바람을 타고 놀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람을 불러 제 몸의 흥겨움을 누렸다는 생각을 말이다. 세상 사는 일은 이렇다, 저렇다 할 정답이 따로 없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남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이라면 결과가 어떻더라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자연에게서 늘 배운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 어찌 저리도 제 역할에 충실한지. 남의 일에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 내 모습 그대로 싹틔우고 꽃피우고 열매 맺고 땅에 떨어져 제 길을 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빛에 고개 내밀고 달빛에 고개 떨구며 그렇게 매 순간을 순응하며 산다. 가끔 생각한다. 나는 왜 자연처럼 저리 순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핑계 대며 사는가 싶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한참을 마주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쓴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씻겨내린다.

옛그제는 골프 라운딩 중에 노랑게 핀 들꽃과 함께 하얗게 핀 안개꽃 들판을 만났다. 마음이 쿵쾅거린다. 어찌 저리도 아름다울까. 누구를 위해 핀 것이 아닌, 그저 저들은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가슴이 찡해져 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내 몫인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잘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 잘살고 있는가 물었다. 그것은 창조주가 빚어주신 목적에 맞게 피조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여러여리한 저 들꽃과 들풀들이 바람을 타며 놀고 있다. 부드럽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제 역할과 몫을 다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보여지는 모습

이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함을 지닌 분들이 많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깊은 속 이야기 꾸러미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것이다. 그 속의 꿈과 소망이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와 지금 실천하며 이루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보물인 것이다. 그 속 깊이에 담긴 보석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늘 자연의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뿐만이 아닌 사람들(남, 녀, 노, 소)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이다. 나 아닌 남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누군가와 만나 나눔을 일기처럼 써보는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어찌 그리도 많이들 갖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의 문을 여니 그들이 더욱 사랑스럽고 미더워졌다. 부드러운 강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이 참 아름답고 고마웠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소나무 소리를 듣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몇해전 이다. 연말에 모교 달력을 받았다. 달력 사진엔 청송대 사진도 실려있었다. 청송대는 역사깊고 소나무 울창한 숲이다. 명품 장소중 하나인데, 나야 당연한 것 처럼 청송은 푸른 소나무라 생각했다. 그런데 달력에 나와있는 작은 꽃말에는 듣는 청송聽松로 되어있었다. 소나무를 듣다? 부는 바람에 열핏 소리내는 소나무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다. 과연 청송靑松보다 청송이 더 멋지고 의미가 깊다. 소나무 소리를 듣다.

덕분에 오래된 사진들을 들춰 봤다. 눈을

잡은 사진이 있었다. 총장공원. 돌로 지었는데, 집을 둘러싼 소나무가 볼만 했다. 잔디밭과 사뭇 어울렸고, 봄베라도 내린다면 더욱 볼만할 터.

지금은 총관공관이 박물관으로 쓰인다 했다. 쓰임새는 달라졌으나, 사진을 다시 쳐다 보면 놀라웠다. 건물모양이 눈에 익었던 거다. 아니 이럴수가. 뉴잉글랜드 스타일이었으니 말이다. 당연하다만 한국에 있을 적엔 모르던 사실이었다.

조선조 시조 한편이다. 청강에 비드는소

리. 제목이 있을터 없겠다만, 첫 구절이다.

청강淸江에 비드는 소리 그 무엇 우습관대
만산에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고야
두어라 춘풍이 몇날이리 웃을대로 웃어라
(효종임금)

청강淸江도 그럴듯 하다만, 청강聽江역시 만만치 않다. 물소리를 듣는 것 말이다. 하긴 물소리리 듣긴 빗소리를 듣긴, 소나무가 소리건 모두 정겨운 소리임에 틀림 없겠

다. 바람이라도 훌쩍 분다면 소리는 더 커진다. 그러나, 들음이 먼저 일터.

후두둑 빗소리를 듣고, 젓는 빗뽄 푸른 소나무를 본다. 비오는날 우리집 뒷마당 정경이다. 우리집은 총장공관과 열핏 비슷하다. 돌로 지은집은 아니지만, 이젠 낡아 역사만 자랑한다.

올 여름엔 그런 정경을 즐길수 있을 겐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창세기 1:30)

Shaping young minds is like discovering diamonds in the rough

1ST DIAMOND CUP GOLF CHAMPIONSHIP



DIAMOND CUP

GOLF

Monday, 1st. July 2024'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REET
CANTON MA 02021

PRIZE

4 CLOSET TO THE PIN

**EACH WINNER RECIVES 1 CARAT
PREMIUM QUALITY CVD DIAMOND**

*1ST PLACE: \$2000/ TEAM
2ND PLACE: \$1500/ TEAM
3RD PLACE: \$1000/TEAM
LONGEST DRIVE: \$215
LUNCH , DINNER AND AFTER PARTY WITH DI*

CHAMPIONSHIP TYPE

*TYPE: 4 PERSON SCRAMBLE
PARTICIPANT: 144
REQUIREMENT: 18+ MALE/
FEMALE GHIN NOT REQUIRED*



REGISTER NOW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

www.usfutureleadership.org

Registration: formfacade.com/sm/tu4ab5NGY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쿨 우승자

문태국 첼로 독주회

이지영 피아노

6월 22일 (토)
저녁 7시반

Williams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PROGRAM

<i>Fauré</i>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i>Schumann</i>	Fantasiestücke, Op. 73
<i>Yun</i>	Nore
<i>Mendelssohn</i>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2

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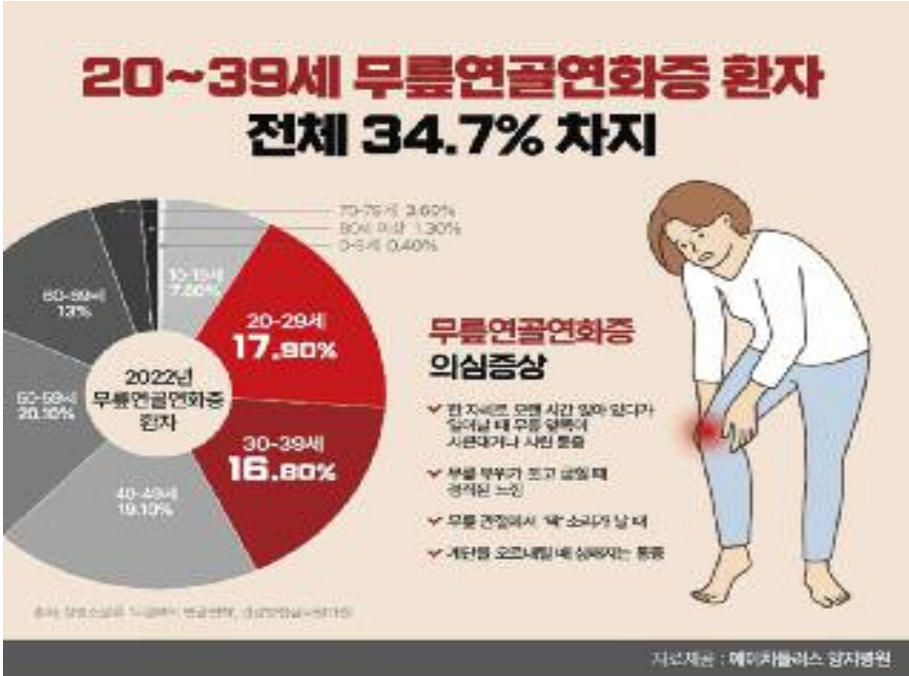
www.kcsboston.org

일반 \$30/ Senior \$20
학생 무료 (등록 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릎연골연화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흔히 무릎 관절 질환은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 20~30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릎연골연화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이 용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기에 젊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무릎 질환은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이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골연화증은 최근 활동량이 많은 젊은 연령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무릎연골연화증 환자 수는 8만 8482명으로 이 중 20~30대가 전체 환자의 약 34%(3만

6797명)를 차지했다. 연골연화증은 단단해야 할 무릎 연골이 말랑말랑하게 변하면서 연골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주로 슬개골에 많이 발생하는데, 연골에 단순히 부종이 생기는 상태부터 조직 전체에 균열과 손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무릎연골연화증은 무릎이나 넓적다리 관절에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비만,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과격한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에 생기기도 한다.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려지거나 시린 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무릎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무릎 관절에서 '딱' 소리가 자주 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상이 발생하면 신체 검사와 x-ray, MRI 검사로 진단하고 방사선 촬영을 통해 관절면의

불규칙한 정도나 퇴행성 변화 등을 보고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가벼운 연골연화증이 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무릎 주변 근육을 단련해 약해진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기에 관리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통증이 심하다면 체외충격파 치료,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치료, 관절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데 이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무릎연골연화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무리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무릎에 과도한 압박이 가는 운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나 무릎을 구부리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등의 생활습관도 교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보다는 무릎에 부담이 덜한 운동화 등을 신는 것이 좋고, 무리한 다이어트 역시 무릎연골연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영,

실내사이클 등을 꾸준히 하고 적정 체중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 등 중증 무릎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릎연골연화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엇갈리는 미국 경제지표..."고 · 저소득층 소비격차 때문"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도 줄이는데 크루즈업체는 호황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미국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비격차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다.

지난 7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7만2천명 증가했다. 4월의 16만5천명보다 크게 늘었고, 시장 예상치 19만명보다도 훨씬 많다.

4월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5월 구매관리자 지수도 예상보다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당혹스러운 수치다.

지난 4일 나온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서 4월 구인 건수가 805만9천건으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과도 크게 다른 양상이다.

실업률 지표도 해석하기가 어렵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24세 젊은 층 실업률은 7.9%로 전년 동기의 6.3%보다

상승했다.

정부 통계만 헛갈리게 나오는 건 아니다.

식료품업체 캠벨 수프는 소비자들이 식료품 소비를 더 줄이고 있다면서 매출 전망치를 낮췄다.

이에 비해 크루즈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양상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에 쓰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일자리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부유층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의 마크 캄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한 투자자 행사에서 "소비자들, 특히 우리가 상대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 승객의 가구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이다.

고소득층에게는 최근의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다.

부유층 대부분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팬데믹 기간에 매우 낮은 금리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았거나 이후 저금



리 상품으로 갈아타 금리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

주식투자자들도 많은데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주가도 많이 오른 편이어서 수익률도 좋다.

신용카드 할부나 자동차 할부도 많이 하지 않는다.

WSJ은 고소득층이 휴가에 돈을 많이 쓰거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는 상황은 (경제지표를 좋게 만들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satw@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